

# 전남도, 환경산림 예산 1조 6천억 '역대 최다'

### 올해 탄소중립·공공수역 수질보전·생활환경 개선 등 집중 전기·수소차 보급 충전소 확대... 도서지역 식수원 확충 등

올해 전남도의 환경산림 분야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995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 중립·공공수역 수질 보전·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 대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1448억원 들여 전기자동차 8101대, 수소차 443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200기과 수소충전소를 기존 6개소에서 14개소로 조기에 확대해 친환경차 중심 사회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601억원을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 대기오염 핵심 배출원을 개선

하기로 했다.

도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식수 부족문제를 해결하며, 맑고 깨끗한 강·하천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상수도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2152억원을 들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823억원을 들여 항구적인 기동대책을 추진,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57억원을 들여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및 지류·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시설 확충사업(6개 사업, 6171억원)을 통해 공공수역 오염 방지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의 순환경제체계를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313억원을 투입,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정비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재활용시설 확충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2020년 35%에서 2024년 43%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생태계 기반 구축 등 27개 사업에 262억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전남 환경보전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환경성 집합 예방·관리 및 교육·홍보 등 도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산림 분야는 산림재해 예방·대응에 집중한다. 산림재해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능형 산불 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사업, 산불진화체계(산불헬기 9대·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구축, 산사태 예방사업 등에 676억 원을 투입, 재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조성과 지속가능한 정원·휴양시설을 확충한다. 경관·소득습 등 다양한 숲 조성을 위한 10개 사업과 지방정원 조성 및 기후대응 도시 숲 등 12개 사업에 1547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원과 도심 녹지 조성을 통해 생활권 녹색 기반을 확충한다. 총 사업비 1475억원이 소요되는 국내 최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깨끗하고 청정한 생활환경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R&D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제)전남테크노파크 전남 연구개발(R&D)지원단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R&D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 단계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 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R&D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주도 R&D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 R&D지원단은 ▲과학기술 정책 지원 ▲R&D 조사·분석 ▲R&D 기획·관리 ▲네트워크 등 고유기능을 중점운영 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달 시행된 2023년 단계평가에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과제기획 지원을 통한 중앙공모과제 수주, 산업정책과 현장의 연계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현석 기자 chadol@



해남에서 겨울 해풍을 맞고 자란 유기농 봄동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2월 친환경농산물에 '해남 봄동배추'

### 겨울철 소득 증대 기여...칼슘·비타민 등 풍부해 면역력 증대

"지난 2009년 정보통신(IT) 관련 직장을 다니다가 고향으로 귀농해 키위부터 시작해 봄동배추까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간직한 쑥, 죽순, 목초액 등 천연재료를 퇴비와 액비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해남에서 유기농 봄동배추를 재배하는 나경업(56·사진)씨는 소비자에게 맛있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기농 봄동배추로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모두 계약재배로,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에 1kg 당 3800원에 납품한다.

전남도가 해남 황토 땅에서 겨울 해풍을 맞고 자

라는 '유기농 봄동배추'를 2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봄동배추에는 칼슘, 칼슘, 인,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베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C 함량도 높아 항산화 작용 등 면역력 증대에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

식감은 아삭하고 맛은 고소하며 향이 좋아 곁절이나 찜으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겨울철에도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품목을 공급하는 생산기반을 마련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 전남개발공사 데이터기반행정우수기관 선정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기관(288개)·공공기관(130개)·지방공기업(46개)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역량문화의 4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기업 평균점수는 27.4점으로 46개 지방공기업 중 우수 등급(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전남개발공사는 협의체 운영,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남해안을 K-관광의 거점으로..." 전남관광재단·경남관광재단·부산관광공사 협력사업 발굴 논의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하는 남해안권 관광개발 계획 사업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남관광재단이 경남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등과 함께 공동협력사업 발굴에 나섰다. 본 사업에 앞서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사업성, 경제성 등을 사전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관광재단은 15일 남해안권 연계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을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재단 대회 의실에서 '전남·경남·부산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개 시·도의 관광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기관 임원, 실무진 등

이 참가해 남해안을 K-관광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신규 관광자원 홍보 및 팸투어, 국내외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등 2024년 각 기관의 관광 마케팅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남해안의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테마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 및 홍보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정부의 남해안권 관광개발 계획 사업을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여순사건 실체적 증거 확보 총력

###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설명회 발굴 유전자감식 중점 추진

전남도가 지난 16일 동부청사에서 여순·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경현 여순사건위원회(중앙) 진상규명과장과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 유족회장, 실무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사회에서는 방기됐던 유해를 수습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2년 시행되며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지역인 구례 산동면 2곳과 담양 대덕면을 발굴 대상지로 선정, 국비 3억4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굴작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발굴 유해를 대상으로 유전자 감식과 유족 채혈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시굴 및 정밀 조사와 유족들의 추가 증언,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여순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 발굴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